

# “고양특례시 지정 쾌거 수혜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 이재준 고양시장 인터뷰



### Q 고양특례시 지정을 축하한다. 그간의 과정과 소감을 말해달라.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되며 고양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됐다.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지 28년,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후 6년, 민선 7기 2년 반 만에 이룬 쾌거다.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고, 법안이 통과되는 데 힘써 준 시민 여러분과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Q 앞으로 고양시가 어떻게 바뀌는가?

특례시 지정으로 이런 거대 기초자치체들이 도(道)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대신, 일부 사무 권한을 이양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도서관 설립·신

호등과 횡단보도·버스노선·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결정할 때도 경기도의 승인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

특례 권한이 부여되면 정부와 직접 교섭을 통해 정부 공모 사업과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쉬워지고, 행정절차에 있어 경기도를 경유하지 않아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무 이양을 통해 광역 시급으로 자치 권한이 커지고, 시민의 복지혜택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이 적용될 때 수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내 자금 환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도시브랜드와 경쟁력 또한 크게 향상돼 최종 수혜는 결국 고양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몸에 맞는 옷을 걸친 고양특례시는 규모에 맞는 신청사 건립과 지방승격 등 남은 과제를 착실히 해결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에서도 중앙·광역권한과 재정의 이양이 합



1 이재준 고양시장 2 고양시청 전경  
3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협력식에 참석한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변창흠 당시 LH 사장  
4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재준 시장(가운데)과 KT, 음니시스템 관계자



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특례시가 시행되는 2022년은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되는 30주년이라 큰 의미가 있다.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킨텍스 제3전시장·CJ 라이브시티 등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굵직한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마쳐 108만 시민과 함께 할 고양시의 미래를 보다 큰 도화지에 새로 그려나가겠다.

### Q 민선 7기 시장 운영 과정에 대한 소회는?

민선 7기 고양시가 하루아침에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2년 6개월은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여정'임과 동시에 그동안 쏟아왔던 '노력이 결과로 가시화하기 시작한 기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선 '잃어버린 땅'들을 시민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킨텍스·테크노밸리 인근 8천실의 호텔 부지가 오피스텔로 채워지는 것을 막고, 도시공원일몰제를 맞이한 7개 공원은 시가 사들이거나 창릉신도시 관련 훼손지구 복구사업비로 확보했다.

특히 '잃어버린 개발이익'을 되찾기 위해 애썼다.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미래가, LH나 다른 기관의 개발 사업으로 많이 침해받아왔다. LH와 좋은 협력관계를 이끌

어내 창릉 3기 신도시 등 남아있는 여러 사업에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들의 많은 부분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기 위해 노력이다. 장기간 정체됐던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 3전시장이 2021년 착공해 사업이 본격화된다. 대곡·소사선도 장기간 협상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경기도 3개 공공기관과 세계태권도연맹(WT) 국제기구까지 고양시에 들어오게 되면서, 고양시는 이제 미래 경제지도를 완성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고양시는 그동안 도시를 재생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추진해왔다.

5개의 대상지와 성사혁신지구까지 총 6곳의 도시재생 사업·신청사 이전·경의선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우리시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 내 곳곳에서 추진 중이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남은 임기 동안은 잃어버린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많은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 고양시

# 특례시

# 확정

108만 시민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